

'악성 댓글'이 스포츠를 병들게 한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기자



손흥민 (대한축구협회 제공)

별장게 부어오른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의 눈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 현장 취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해 6월 24일(이하 한국 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멕시코와 2차전에서 0-2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만회골을 뽑은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기자들과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들 앞에서 “죄송하다”

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점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축구 대표팀을 향해 쏟아진 비난에 대한 마음고생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비판 아닌 '비난'에 시달리는 선수들

월드컵 현장에선 커다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선수단의 동선과 생활 패턴은 오로지 경기 일정과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은 한식만 먹고 식사 후에는 비타민제나 프로틴(Protein)을 섭취합니다. 수분도 수시로 보충하고 간식으로는 바나나를 먹습니다”라며 “기상과 수면은 각자 루틴대로 하되, 오전 9시 조식 시간은 꼭 지킵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선수단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의 사소한 실수는 곧 수천 개의 악성 댓글로 돌아왔습니다. 프로 선수이고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 비판을 받는 건 숙명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그 정도는 상당히 과했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난’이 들끓었으니깐요.

대표팀 수비수였던 장현수(28·FC 도쿄)에게 특히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 18일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스웨덴과 1차전(0-1 패) 직후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경기 중 그의 패스미스가 김민우(29·상주 상무)의 페널티킥 파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포털의 기사들에는 장현수가 대표팀 패배



장현수 <대한축구협회 제공>

의 원흉이 됐다는 몰아가기식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전에서도 아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반 21분 멕시코가 역습하는 과정에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31·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막으려고 깊은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며 추가 실점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장현수는 경기 뒤 이례적으로 믹스트존 인터뷰를 사양하고 다른 통로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 보호 차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

포츠 대회에선 출전한 선수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활약하면 영웅이 되지만, 지거나 실수하면 졸지에 ‘역적’이 됩니다. 1등과 승리만을 원하며 승부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일부 팬들은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치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면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을 달곤 합니다.

멘탈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은 ‘열악’

대표팀의 월드컵 준비부터 대회 출전, 이후 행보들을 꾸준히 취재하면서 악성 댓글이 과연 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대표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은 대회 전에도 존재합니다. 대회가 열리기 전 달리는 악성 댓글들은 선수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골잡이였던 김도훈(49) 울산 현대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전 전화 통화에서 대표팀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감독은 “국민은 대표팀이 월드컵에

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결과는 그다음입니다. 응원을 많이 해준다면 그 힘을 선수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는 외부의 응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에 대한 평가절하나 비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대회 기간, 그중에서도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태극 전사들의 마음엔 이미 칼자국이 생긴 것입니다.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를 즐기지 못하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멕시코전에선 원하던 골을 기록했지만,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취해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여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신과 대표팀에 또 어떠한 화살이 돼 날아올지 몰라 말도 신중히 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악성 댓글에 시달린 장현수를 두고 당시 대표팀의 한 관계자

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보였지만, 취재 결과 대표팀에는 의외로 선수들의 마음을 보살펴줄 심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에는 심리 전문가가 있지만, 남자 대표팀에는 없습니다”라며 이유에 대해선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자 선수라고 인신공격성 댓글에 마음이 편할 순 없습니다. 축구계에서 남자 선수들은 여자 선수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동시에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대표팀도 심리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때론 외모로 선부를 편견이나 오해 받아

프로 골퍼들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여자골프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팬심은 그에 맞는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더욱 중요한 종목입니다.



안신애 (박종민 기자 촬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출신이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A골퍼는 한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다 정상에 선 후 과거 우울증에 가까운 증세를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A선수 측근의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었습니다. A선수는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좀처럼 우승하지 못하자 “기대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충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취재를 하는 입장에 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로 인한 악성 댓글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프로 골퍼 중 한 명은 안신애(29)였습니다. KLPGA 투어에서 메이저 우승을 포함해 통산 3승을 거둔 그는 지난 2017년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 진출하면서 한국스포츠경제에 <안신애의 필드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틈틈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자 골퍼로서 겪는 고충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

안신애 (안신애 인스타그램)



있었습니다.

안신애는 “악성 댓글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든지 ‘우승은 언제 하나’ 등과 같은 댓글들은 쓴소리이기는 하지만, 제 골프 인생에 뼈와 살이 되고 흔들릴 때 자극이 되는 ‘조언’들이라서 도움이 됩니다”라면서 “다만 상처만 받게 되는 댓글들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담패설에 가까운 댓글들인데요. 내용이 너무 야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인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 여자로서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를 두고 ‘지저분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큰 상처가 됐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 안신애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겨울전지훈련을 가면 하루 8시간의 고강도 훈련도 곧잘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코어 운동을 비롯해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을 늘리려 웨이트 트레이닝만 1시간 30분 이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윙 순간 임팩트를 위해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복싱, 높이 뛰기, 멀리뛰기 등 훈련들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게재하는 스윙 영상에 대해서도 그는 “그때그때 어떠한 자세로 스윙하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올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신에는 “직장 인분들이 그러하듯 저희 선수들도 하루 하루 열심히 삽니다. 댓글을 달 때 선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화려한 외모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편견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스포츠의 순수함 저해하는 악성 댓글 사라져야

주로 취재했던 축구와 골프 외에 다른 종목들에서도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는 많습니다. 수년간 스포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악성 댓글이 스포츠를 병들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에선 체격 조건과 운동 능력도 중요하지만, 심리 싸움과 전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악성 댓글은 선수들의 심리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선수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준비한 부분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해당 경기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스포츠의 재미 자체가 반감되는 것이지요. 악성 댓글은 단순히 경기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일

부 선수들에겐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악성 댓글을 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주체는 그 댓글 내용에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투영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심리학계에서는 얘기합니다. 일상에서의 문제와 스트레스,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 등을 댓글을 통해 표출하고 해소하려는 심리인 것입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성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선 많은 사람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본 피해자 등 약자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쌓인 그러한 스트레스들을 스포츠 선수들에게 일부 표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취재의 기억을 더듬어봅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내리 2패를 당하고 6월 27일 카잔에서 당시 FIFA 랭킹 1위의 독



손흥민 <대한축구협회 제공>

일 대표팀과 마주했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한국과 독일은 어느 팀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후반 추가시간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6분 동안 무려 2골을 몰아치며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이 종료 10초를 남기고 하프라인부터 상대 골문까지 전력 질주해 썰기 골을 넣은 장면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이 전광판을 가득 채운 순간, 보는 이들은 무한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스포츠는 그렇게 극적이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스포츠의 감동과 순수함을 ‘악성 댓글’이 저해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은 있어야 하지만, ‘비난’은 지양돼야 합니다. ‘악성 댓글’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